

# 지중해에서 열린 어린이왕국의 책잔치

## '98 볼로냐 아동도서전 참관기

정보경

진명출판사 북경사무소 소장

이탈리아 볼로냐에서는 해마다 4월이 되면 어린이 도서의 축제, 볼로냐 아동도서전이 열린다.

이탈리아 중부 에밀리아 로마냐 주의 인구 50만의 아담한 소도시인 볼로냐는 북부와 남부를 잇는 교통의 요지로서, 오래전부터 다양한 사상과 예술이 유입되어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로 발전해온 유서깊은 고장이다.

도서전이 개최된 곳은 볼로냐역에서 버스로 210분 정도 거리의 피에르(Fiere)라는 곳으로 아동 도서전 외에도 구두, 양복 등의 무역 전람회를 27회나 개최하는 등 전세계의 전문가들이 이 조그만 상공업도시로 불러들이고 있다.

### 뉴 미디어상도 새로 신설

이번 도서전은 4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 동안 50개국에서 1400여 출판사가 참가하여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꾸며졌다. 전시장의 규모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약 1/2, 서울도서전의 약 10배 정도의 규모로, 10개의 대형 전시홀과 입구에 해당하는 별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10개의 대형홀은 각각 분리된 단층 건물로 넓은 대지 위에 있는 10개의 홀 사이를 여담이문을 통과하며 관람하게 돼 있다. 이탈리아의 출판사들이 6개의 홀을 차지하고 한국을 비롯한 외국 출판사들은 4개의 홀을 차지했다.

위트 넘치는 사회자의 인사로 시작한 리셉션은 볼로냐 아동도서전이 만들어낸 2가지 권위 있는 상에 대한 수상식과 맑은 목소리로 동심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어린이 합창단의 합창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올해로 20회째를 맞이하는 '볼로냐 라가치 상(Bologna Ragazzi Award)'은 해마다 전세계의 아동출판물을 영·유아(0~5세), 어린이(6~9세), 청소년(10~16세)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픽션과 논픽션에 대해 주어지는 상이다. 올해는 픽션부문에 독일의 벨차 켈버그사의 《Fünfter sein》, 카를 한저사의 《Der Sammler der Augenblick》, 일본 지광사(至光社)의 《Go to my paper planet》이 수상작으로 뽑혔으며, 논픽션 부문에는 프랑스 밀라사의 《Collection Nature》, 스위스의 지트글로게사의

《Concerto Classico》, 벨기에의 카스터만사와 프랑스의 갈리마르사가 합작 출판한 《Du pays des Amazones aux îles Indigo Atlas des géographes d'orbae》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특별상으로는 독일의 라벤스부르거사의 《Alphabet》가 차지하였으며 상으로 픽션 부문에 6작품이, 논픽션 부문에 2작품이 선정되었다. 수상작들은 전시기간 내내 전시되어 영광의 빛을 누렸다.

올해 새로 탄생한 또 하나의 상 '볼로냐 뉴미디어상'은 전자출판물 발전에 기여한 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학부모·사서·교육학자·어린이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선정된다. 총 13장르에 걸쳐서 선정된 이번 수상작은 유럽의 출판물들이 '라가치상'을 휩쓸었던 것과는 달리 미국의 회사가 과반수 이상인 8개 부문에 수상을 함으로써 멀티미디어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미국의 위력을 실감케 하였다. 수상작들은 29홀과 30홀 사이에 마련된 소프트웨어 아케이드에 전시되어 관심을 끌었다.

전시장 입구의 일러스트레이터를 위한 공간에는 우리나라의 박은영 교수(웅전전문대학)의 2작품을 포함한 각국 150명을 초대할 일러스트레이터 전시회, 플레미시 초대작가 전, 저명한 일러스트레이터 모델로의 50년 일생을 다룬 《The secret Garden of Mordillo》라는 타이틀의 전시회를 가져 무한한 환상의 세계를 펼쳤다.

또한 일러스트레이터 카페에는 나흘 내내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직접 이곳을 찾은 일러스트레이터들이 게시판에 자신의 작품과 연락처를 적은 쪽지를 붙여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무질서하게 벽면을 가득 채운 광경은 마치 하나의 자연스러운 시각예술품처럼 보였다.

### 복합기능의 도서가 강세

우리에게도 친숙한 입체 그림책, 소리나는 책, 향기나는 책, 움직이는 책, 액선북 등의 출판물은 더욱 다양하고 높은 수준으로 향상됐다. 책의 사이즈도 빅북 형태에서 어린이 손안에 쉽게 잡히는 핸드 사이즈까지 천차만별이었다.

호기심 많은 어린이들을 끌었던 지식의



피에르에서 개최된 볼로냐 아동도서전 입구.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자신의 작품과 연락처를 적은 쪽지를 붙여놓은 게시판이 마치 하나의 시각예술품 같다.

세계로 인도하는 백과사전류는 더욱 전문화돼가는 경향을 보였으며,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꾸민 공작놀이 형태의 도서와 색칠하기, 숨은 그림찾기, 퍼즐, 게임 등 오락성을 부여한 복합기능 형태의 도서도 강세를 보였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소개된 스위스의 마쿠스 피스터의 《Der Regenbogenfisch》(Nord-sud사)가 일본의 고단샤(講談社)에서 번역출판되어 작년 한해에 30만부가 팔리는 이례적인 기록을 남겼는데, 출판사마다 환상적인 삽화와 우수한 내용으로 마음을 사로잡는 그림책들을 대량 선보이면서 자국의 우수 작가 소개에 열기를 보였다.

또한 인기 캐릭터를 이용해 엽서·스티커·달력·노트·인형·모빌·책갈피·수건 등

으로 상품화하였으며, 그림책들도 세트로 묶어 선물용으로 재구성한다든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사탕을 곁들이는 등 새로운 아이디어로 판매를 극대화시켜나가고 있었다.

올해는 아시아에 불어닥친 경제 위기로 아시아권의 참여가 저조했으며 예년보다 침체된 분위기라는 것이 참가자들의 견해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웅진출판사'와 신생출판사 '재미미주' 두 회사만이 참가하여 출판사들의 심각한 경제 위기를 실감케 하였다. 주로 아시아에 판권을 팔아오던 유럽이나 미국의 상당거래도 지난해에 비해 줄었다고 이야기한다. 즉석에서 판권계약까지 해버리던 한국 출판 관계자들의 모습을 올해는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